

# 무령왕릉 이후 최대의 성과, 수촌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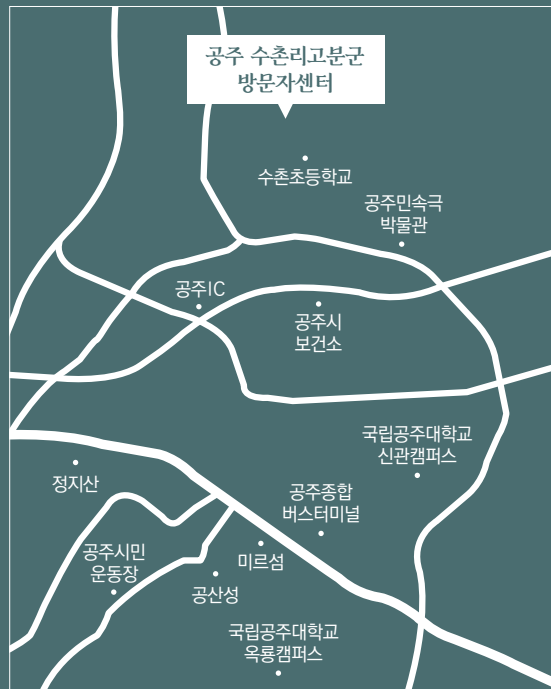
## 웅진백제 이전, 공주에 살았던 백제인들.

공주 수촌리고분군 일대는 2003년 9월 의당농공단지 조성계획으로 발굴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잡목이 우거진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초기철기~백제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무덤들이 확인되었고 특히 백제시대 무덤 안에서는 금동모자, 금동신발, 금제귀걸이, 중국제 자기 등 당시 최상급이라 불릴 만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령왕으로만 떠올려지는 웅진백제시대 이전, 이 지역 최고 지배자인 수촌리고분군의 발견을 통해 백제 무덤의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에 무령왕릉 발견 이후 최대의 백제 무덤 발굴성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공주 수촌리고분군 방문자센터 오시는 길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번지  
(수촌초등학교 뒤편)



## 예약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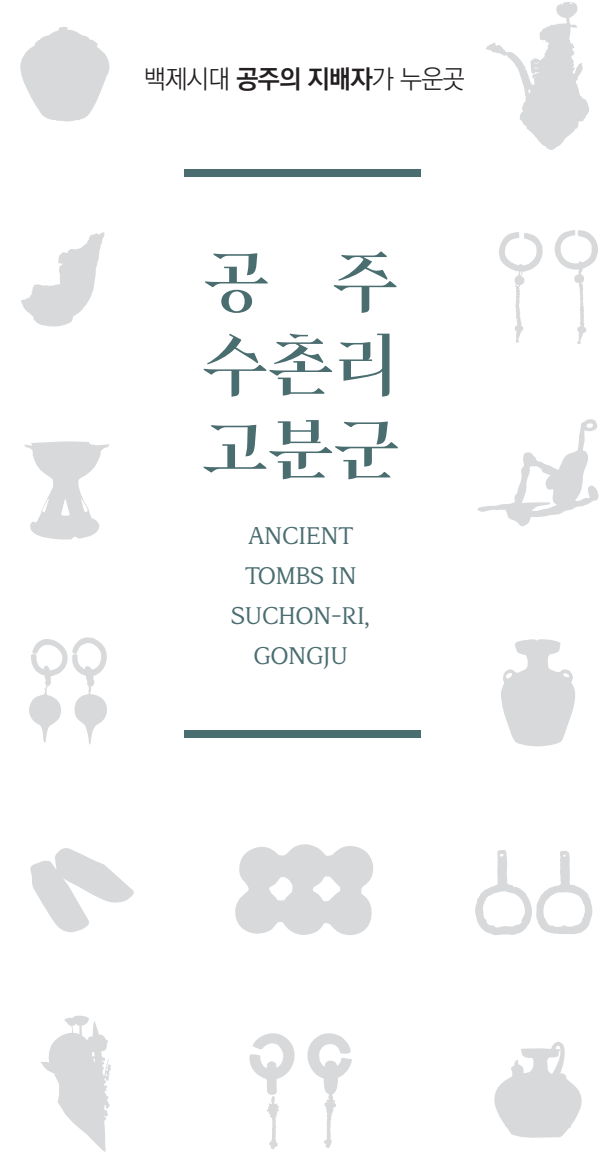
### 현장 설명 및 견학 문의

공주 수촌리방문자센터 070-4456-1036, 1037

###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전예약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조사연구부 041-840-5060-5064

본 안내 자료는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백제시대 공주의 지배자가 누운곳

# 공주 수촌리 고분군

ANCIENT  
TOMBS IN  
SUCHON-RI,  
GONGJU

## 초기철기에서 백제시대로!

수춘리고분군은 지형에 따라 I, II지역으로 나뉘는데 이곳은 I 지역에 해당됩니다.

발굴조사 결과 초기철기~백제시대인의 집자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형 무덤 등 고대인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수춘리고분군이 백제시대 유적이라 널리 알려져 있지만 I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무덤에서는 기원전 2세기 철기인들의 무기인 세형 동검을 비롯하여 생활도구인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백제시대 대형 무덤에서는 백제시대 최초로 추정되는 육연호 토기와 화려한 금제귀걸이 등이 출토되어 공주지역 고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연호(13호)



금제 귀걸이(19호)



동근고리 칼(13호)

백제 14호 석실



## 백제시대 공주의 지배자가 누운 곳

II지역은 백제시대 무덤군으로 널무덤, 덧널무덤, 돌덧널무덤, 돌방무덤 등 다양한 무덤 양식 확인되어 당시 백제인들 사후세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무덤 내부에서는 금동모자, 금동신발, 중국제 자기 등 최상급의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었고 연구 결과 무덤의 주인공은 4~5세기 공주지역 최고 지배자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주 수춘리고분군은 한성백제(현 서울)가 웅진(현 공주)으로 천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수춘리 고분군이 2005년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1호 금동 모자 복제품



4호 금동 신발 복제품

4호 관모



4호 신발 과 발뻐



중국제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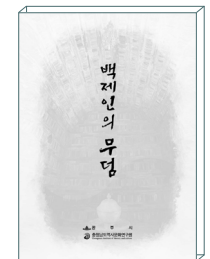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한 수춘리고분군

수춘리고분군은 2003년 최초 발굴조사 이후 2019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무덤과 화려하고 새로운 유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공주시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이러한 중요 문화재를 세상에 알리고자 지속적인 학술대회와 전시, 기록화사업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공주 수춘리고분군 방문자센터가 개관되어, 모든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체험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춘리고분군 방문자센터에 오셔서 재미있는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함성에서 웅진으로」 도록



「백제인의 무덤」 도록

수춘리고분군 원경

